



포항시 인근 규모 5.4 지진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안전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월성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포항지진(11. 15. 14:29, 경북 포항시 북쪽 9km 지점에서 발생, 규모 5.4)과 관련, 월성 1호기의 정밀 점검 결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포항지진 발생 직후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지진 정보가 발생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착수하였으며, 지진계측기 정상 작동 여부 등 계측값의 적절성, 지진 발생 직후 사업자 대응 조치의 적절성, 주요 기계·설비 등 지진에 의한 건전성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많은 만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되, 가능한 규제인력을 총 동원하여 조속하게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영국·체코에 원전 수출 의지 표명

영국 하원의원 및 체코 차관 등 양자 면담 통해 원전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지원실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7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 이사회(11.7~8일)에 참석해 영국·체코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 계획을 전달하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1월 7일 체코 산업통상부 코바초프스카(Kocačoska)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를 적극 전달하고,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이 단순 시공 분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례와 같이 다양한 인력 교류, 기술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장기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1월 8일에는 영국의 리처드 해링턴(Richard Harrington) 하원의원 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원전수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원전 건설 분야에, 영국은 원전 해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향후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11월 9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제레미 포클링턴(Jeremy Pocklington)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에너지·안보실장을 면담, 우리나라 기업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우수한 원전 건설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이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영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해체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이 해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해체 선진국인 영국과 인력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영국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리아 리더십, 세계 원자력 안전 연구 이끈다”

KAERI, ‘OECD-ATLAS 2차 국제공동연구’ 본격 시작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의 원전 안전 국제 공동 연구인 ‘OECD-ATLAS 2차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 이어, 이번에도 본 공동연구를 주관함으로써 원전 안전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스페인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전 안전성 향상 국제 공동 연구 OECD-ATLAS 2차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착수회의를 11월 13~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했으며, 관련 기관 원자력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공동연구의 세부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지난 OECD-ATLAS 1차 프로젝트(2014.4~2017.3)의 성공적 완료에 따라 연구의 지속적 추진을 바라는 참여국들의 지지가 중요한 원동력이 됐으며, 앞으로 2020년 9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 안전 연구시설인 ATLAS(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를 이용해 획득한 데이터를 핵심 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연구원은 생산된 실험 자료를 참여국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험결과 분석과 해석 방법 정립 등 공동연구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제2차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국내 컨소시엄 협약식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ATLAS(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300만 유로(한화 약 40억 원)로, 이 중 절반은 해외 참여국들이 분담한다.

OECD-ATLAS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시설인 ATLAS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07년 자체 기술로 설계, 건설해 운영 중인 세계적인 대형 연구시설로, 원전의 원자로계통, 안전계통 등을 상세하게 축소 제작함으로써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냉각재 상실 사고, 급수관 파손 등 다양한 사고 상황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모의할 수 있는 현존 최적의 실험 장치다.

한편 ‘OECD-ATLAS 2차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월 2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KHNP-CRI), 한국전력기술(KEPCO E&C)과 함께 ‘제2차 OECD-ATLAS 국제공동연구’국내 컨소시엄 협약식을 연구원 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국내 컨소시엄은 본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참여 분담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준언 원자력안전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OECD-ATLAS 2차 프로젝트 수행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안전연구를 선도하고 국내 원전 안전성 향상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보다 더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